

‘막바지 짬통 맹위’..광주·전남 온열질환·가축폐사 피해 확산

올 여름 온열 질환자 241명 집계...전남서 2명 사망
 닭·오리·돼지 5만 9449마리 폐사...농수산 피해 없어

막바지 짬통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광주·전남 지역 내 온열질환자,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전남도 보건 당국에 따르면



쿨링포그 아래로 걸어요 폭염경보가 발효된 21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빛 길에 더위를 식혀 주는 쿨링포그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전남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열 탈진·열사병·열 경련) 환자는 광주 62명, 전남 179명을 합쳐 24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추경 사례도 전남에서만 2명으로 기록됐다.

가축 폐사 피해도 증가세다. 전남 16개 시·군, 122개 농가에서 5만 9449마리가 폐사했다. 가축 별로는 닭 5만 5860마리, 오리 2962마리,

돼지 627마리 순이었다. 피해액은 3억 54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지역 내 농작물 피해 또는 고수온 폐사 등은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

광주·전남 지역 폭염 누적 일수는 이날까지 41일 째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5개 시·군(나주·담양·구례·곡성·화순)에는 폭염경보가 유지 중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30~34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최고체감온도 역시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보건 당국은 폭염에 대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야외 작업과 운동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용일기자

코로나19 후 첫 국제 정기선 취항...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신호탄

전남도, 퍼시픽항공과 협약...10월 말부터 무안-나트랑 운항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베트남 퍼시픽 항공과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김산 무안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퍼시픽항공 웬젠 당 고영부사장, 한국공항공사 신용구 글로벌사업본부장. (사진=전남도 제공)

오는 10월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 왕복 정기노선 운항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국제 정기노선이다. 향후 중국, 일본 등 노선 다변화를 통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무안군, 베트남 퍼시픽항공, 한국공항공사와 ‘무안-베트남 나트랑 간 국제 정기노선 취항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웬젠 당 고영 퍼시픽항공 부사장, 신용구

한국공항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무안-나트랑 노선은 코로나19 이후 전세계기만 취항했지만 이날 협약을 통해 정기노선으로 전환해 10월 말부터 주 2회(화·토 출발) 왕복 운항한다.

퍼시픽항공은 국영 베트남항공의 자회사로 1991년 설립돼 올해 무안국제공항과 나트랑, 달랏, 다낭, 호치민 등 베트남 주요 노선을 171항차 운항했다.

전남도는 나트랑 노선의 성공적 운항을 계기로 퍼시픽항공과 정기노선 추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퍼시픽항공 정기노선 취항을 통해 두 나라 국민들이 전남과 베트남을 편리하게 오가면서 문화를 교류하고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선 취항을 계기로 현재 논의 중인 중국, 일본 등 국제 정기편 운항이 속도를 내 무안국제공항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항공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대표 관문 공항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항공사의 코로나19 이후 무안국제공항 첫 정기노선 운항은 그동안 전남도가 현지 관광설명회,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도입 등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 받는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국제 정기편 취항을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도입을 건의한 결과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으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관광객은 15일 동안 비자 없이 전남·전북·광주·제주를 여행할 수 있다.

지난 2월에는 김 지사가 직접 베트남 호치민과 나트랑을 방문해 전세기 유치 업무협약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전남의 다양한 여행상품 관측 활동을 펼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베트남 관광객 1200여명이 전세기로 전남을 찾았다.

무안=이기성기자

수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상무평화공원
 홍길동 테마파크 야영장
 보성계곡
 장성호 출렁다리

여름, 지친마음 달래 Go 가을, 여행종아 설레 Go

지금 바로 장성으로 Go,Go!

장성군
Jangseong